

한국의 歲時風俗과 服飾

-소설 <혼불>에 표현된 텍스트를 중심으로-

유 지 현[†]

상명대학교 생활환경학부 의류학전공

Korean Seasonal Costumes and Clothing Expressed in Novel, <HonPul>

Ji-hun Yu[†]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angmyung University

(2003. 4. 10. 접수 : 2003. 9. 13.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spect new costume culture of 21st Century and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clothing and clothing behavior which represent on Korean Seasonal Costumes expressed in novel, Honpul.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re are special Costumes in a Year. They are New year, First full moon, Servants day, making seasonings, Doo Rae, Wha-cheon Nori(enjoying blossoms) Costumes during spring season, Dan-Oh Costume in summer and Ya-Kwang-Gui(keeping shoes at all night), Su-Ya(overnight), Yeam-Bal(burning dropped hairs) Costume in winter season. There were many relationship with clothing in new year, Wha-cheon Nori and Servants day Costumes, but they only had adorning meaning without special symbolic or incantational meaning. Clothing and clothing behaviors in Seasoning making day Costume, Dan-Ho costume and Ya-Kwang-Gui, Su-Ya, Yeam-Bal Cosumes contained practical meaning with incantational meaning. There were Servants day costumes and Doo-Rae Costumes for lower classes, New year and Wha-cheon Nori costumes for the higher classes. But the First full moon day costume was for both classes. This study will make us to grasp the meaning of clothing culture with Korean Seasonal Costumes, and be useful to measure the changes of Korean costume cultures.

Key words: First full moon(보름), Honpul(혼불), Korean Seasonal Costumes(한국 세시 풍속), New year(설날), Servants day(진새)

I. 서론

본 연구는 한국의 전통풍습과 복식에 관한 연재

연구로서, 선행 발표된 '통과의례와 복식'¹⁾의 후속 연구이며, 세시풍속과 관련된 복식 및 복식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승모(1998)는 세시풍속은 민중들의 주기적이고

[†] 교신저자 E-mail : jyu@sum.ac.kr

1) 유지현, 한명숙, "소설 <혼불>에 나타난 통과의례와 복식분석(I)", 복식문화연구 5권 2호(1997, 8), pp. 169-180.

반복적인 삶의 반영일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시간적 개념과 관념을 함축하고 있는 역법체계의 표현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세시풍속은 개인과 가정, 집단적인 공동체에서 거역할 수 없는 순환적 의미를 지닌 풍속이기 때문에 그 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풍토 그리고 역사상의 변혁이나 제도의 개폐 등 사회적인 영향을 받으며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세시풍속 복식을 연구하는 것은 그 민족의 연중 복식과 복식행동에 따른 주제 및 행위의 고유성을 연구하는 중요한 작업이라 본다.

현대적 의미의 세시풍속은 시대나 사회·관념 등의 변화로 복합적인 면모를 지니는데, 자연의 운행 법칙에 따른 자연력, 생산주기의 생업력, 전통적인 의례력 뿐만 아니라 경축일, 기념일, 공휴일 등으로 그 개념이 확대²⁾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전통 세시풍속의 가치를 재조명함과 더불어 우리 민족의 세시풍속에 따른 복식문화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아가 21세기 새로운 복식문화를 전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本 研究의 범위는 우리 나라의 풍속과 복식에 관한 고증적 묘사로, 수 차례의 수상 경력을 지닌 최명희의 대하소설 『혼불』 10권 중 세시풍속과 관련된 복식 및 복식행동을 서술한 100여 문장만으로 제한하였다.

텍스트의 分析 方法은 內容 分析法과 소설텍스트의 화용론적 의미분석법³⁾을 적용하였으며, 분석절차는 첫째로, 세시풍속을 춘계풍속, 하계풍속, 추계풍속, 동계풍속으로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하며, 둘째로는 선정된 텍스트에 나타난 세시풍속의 복식 및 복식행동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歲時風俗의 개념 및 구조

세시풍속의 歲는 한 해를 의미하고, 時는 네 계절을 의미하므로 歲時란 1년 4계절을 일컫는다. 그러므로 세시풍속이란 일년 중 철을 따라서 행하여지는 자연 및 인간사에 관한 행사⁴⁾로써 매년 그 날이 되면

반복하는 생활관습이다. 즉, 인간의 삶을 위한 연중 행사로 인해 이루어진 풍속이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歲時風俗은 그 나라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문화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김선풍(2001)은 세시풍속을 현재도 관행되고 있는 관습/풍습이며, 반복되는 연단위, 계절단위의 축제이고, 의례라고 하였다. 그는 또한 3대 세시풍속을 설, 단오, 추석으로 보고 이와 같은 명절의 개념 분류를 부습과 의상인 빔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 나라의 옛 歲時風俗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 고려사, 이조실기 등에 일부 기록되어 있으며, 이보다 소상하게 기록된 문헌은 이조 말에 洪錫謨의 「東國歲時記」, 柳得恭의 「京都雜誌」, 金邁淳의 「冽陽歲時記」 등이 있다.

세시풍속은 크게 春季(음력 1, 2, 3月) 風俗, 夏季(음력 4, 5, 6月) 風俗, 秋季(음력 7, 8, 9月) 風俗 그리고 冬季(음력 10, 11, 12月) 風俗으로 나눌 수 있다. 各季의 風俗은 지방마다 약간씩 다르며 종류도 다양하다.

본 장에서는 텍스트인 『혼불』의 내용과 관계 있는 歲時風俗과 복식만을 「東國歲時記」, 「京都雜誌」, 「冽陽歲時記」를 중심으로 간단히 고찰하기로 한다.

1. 春季의 風俗

봄철은 음력 1월에서 3월로서, 명춘, 중춘, 계춘이 있으며, 이때는 예측적 의미의 세시풍속이 중심을 이루어 1년 동안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한다⁵⁾.

1) 설 빙(歲粧)

1월의 대표적인 세시풍속인 설날에 입는 새 옷으로써 남녀노소 빈부귀천 없이 살림 정도에 따라서 마련한다. 어른은 두루마기나 도포에서부터 비선·대담에 이르기까지 새로 준비했으며, 바지·저고리에는 주로 솜을 넣었다. 어린이의 옷은 색동옷으로 여러 가지 색깔의 옷이 마치 꽃과 같다하여 ‘꽃까옷’이라고도 한다.

2) 국립문화재연구소, 세시풍속(강원도, 2001), p. 609.

3) 유지현, 한명숙, *Op. cit.*, p. 171의 <그림 1> 참조.

4) 강무학, 한국 세시풍속기, (서울 : 동호서관, 1981), p. 15.

5) 민속학회, 한국민속학의 이해, (문학아카데미, 1994), p. 111.

2) 입춘문(立春文)

입춘날에 吉意의 글을 朱砂로 써서 대들보, 기둥, 대문, 문간에 붙인다. 이는 악귀가 불행을 가져오기 때문에 강한 신을 門戶에 배치시켜 흉귀의 출입을 막는다는 의미에서이다. 여기서 朱砂는 적색으로서 逐鬼의 기능을 지니며 除禍招福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⁶⁾.

3) 목호로(木葫蘆)

어린이들이 겨울동안 차고 다녔던 청·홍·황색의 작은 조롱박을 14일 밤에 돈 한 푼과 함께 길에 버린다. 그러면 1년 동안의 액이 없어진다고 한다⁷⁾.

4) 제옹(處容)

정월 14일 밤에 제옹을 만들어 버리면 직성⁸⁾의 액을 면한다고 한다. 여기서 제옹은 짚으로 만든 인형으로 인형 배속에 돈을 넣어 만든 것이다⁹⁾.

5) 방연(放鳶)

겨우내 놀던 연을 정월 대보름날에 날려보내는 풍속이다. 남아가 방연하는 대신에 여아는 목호로를 길가에 내버리는 것이다. 이는 모두 送厄과 迎福을 위함이다¹⁰⁾.

6) 답교(踏橋)

정월 대보름밤에 남녀가 다리를 밟는 행위로서 脚疾을 피한다¹¹⁾는 의미에서이다. 여인들은 다리를 밟고나서 입고 있는 저고리의 동정을 뜯어 엽전을 싸

서 다리에 던지므로써 무병장수를 빌었다고 한다¹²⁾.

7) 쥐불놀이

정월 14일과 15일 밤에 논둑이나 밭에서 불놀이를 하는 것으로 이는 잡귀를 쫓고 신성하게 봄을 맞이한다는 것과 잡초를 태움으로써 해충의 알을 죽여 풍작을 기원하며 1년동안 무병하고 액을 멀리한다는 의미가 있다¹³⁾.

8) 머슴날(奴婢日)

음력 2월 1일에 주인이 20세가 된 머슴에게 한 톨을 내며 즐기는 날이다. 이날 이후부터는 어른 취급을 받게 되므로 일종의 머슴들의 성년식이라 할 수 있다¹⁴⁾.

9) 花柳놀이

신해년 봄 正祖께서 세심대에 올라가서 늙은 신하와 조신들을 인솔하고 친히 활도 쏘고 시도 지은 것이 화유놀이의 시초라 볼 수 있다.

3월중 청명한 날에 유생은 유생끼리, 농부는 농부끼리, 부녀자는 부녀자끼리 모여 꽃구경을 가는 날이다. 이때 문장에 능통한 사람들은 즉흥시나 시조를 지어 읊고, 부녀자들은 내방가사를 읊으며, 농부와 아이들은 민요를 불러 흥을 낸다¹⁵⁾.

2. 夏季의 風俗

1) 봉선화 지엽

음력 4월에 초파일과 봉선화지엽이 있다. 이 중

6) 「東國歲時記」: '大內貼春帖子 卿士庶民家及市廛 皆貼春聯頌禱 名曰春視 ...立春日貼宜春字于門 今之春聯昉此 觀象監朱砂塔碑邪文 進于大內貼門樞日...門戶以禦凶鬼...'

7) 「東國歲時記」: '男女幼少者 自冬佩小木蘆 青紅黃三木 如豈狀用綵絲爲綬 上元前夜半潛捐于道 亦謂消厄.'

8) 直隴이란 厄年이 드는 것을 말하는 데, 남자는 11, 20, 29, 38, 47, 56세이고, 여자는 10, 19, 28, 37, 46, 55세에 든다.

9) 「京都雜誌」卷二: '十四日夜 結草偶 號處容 ... 羣兒終夜打門 喚處容 主人開門擲之 羣兒得便搗曳破...'

10) 「東國歲時記」: '兒童列書 家口某生身厄消滅字於紙爲之信 任其所飛 日暮斷其線而放之.' 「洌陽歲時記」: '兒童以十月初 男放紙鳶 女佩木雕小葫蘆三枚 至上元夜 鳶飄于空 葫蘆捐于道 各繫一文錢 名曰防厄.'

11) 「東國歲時記」: '都人士女 ...散至諸橋往來 達夜不絕 謂之路橋 或云橋方言與脚同釋音 俗說如是 則終年無脚疾...'. 「洌陽歲時記」, 正月, 上元, '上元夜踏過十二橋謂之度盡十二月厄...'

12) 임동권, 韓國歲時風俗研究 (서울: 집문당, 1993), p. 161. 韓國名著大全集, 「東國歲時記」李錫浩역, (서울: 대양서적, 1975), p. 47.

13) 임동권, *Op. cit.*, pp. 161-162.

14) 韓國名著大全集, 「京都雜誌」李錫浩역, (서울: 대양서적, 1975), p. 174. 韓國名著大全集, 「東國歲時記」, 李錫浩역, (서울: 대양서적, 1975), p. 60.

15) 임동권, *Op. cit.*, p. 179.

봉선화지염은 붉은 각시나 소녀들이 손톱에 붉은 물을 들이는 습속으로써 이는 봉선화의 붉은 색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逐鬼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2) 단오(端午節)

단오절에는 天中符를 붙이거나 창포에 머리를 감거나 익모초나 떡을 먹는 등 여러 풍속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창포와 관련된 풍속만을 알아보기로 한다. 음력 5월 5일이 되면 소년·소녀들이 창포 삶은 물에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으며 청·홍의 새옷으로 갈아입으며 창포 뿌리를 잘라 비녀를 만들어 壽字 또는 福字를 새기고 양쪽에 연지를 붉게 발라 머리에 꽂는 습속이다. 이는 厄을 물리고 安樂과 福을 기원하는 의미에서이다¹⁶⁾.

3) 유두(流頭)

음력 6월 15일에 계곡이나 清流를 찾아 목욕하고 머리를 감는 풍속으로서 여기에는 不詳을 씻고 災厄을 멀리 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밀가루를 반죽하여 구슬 모양을 만들어 五色를 감을 들여 三枚를 색사에 띄어 차고 다니거나 門楣에 걸어두면 禳鬼가 된다고 믿었다¹⁷⁾.

3. 秋季의 風俗

秋季에는 7월의 百種日, 8월에 추석, 거북놀이, 9월에 重陽의 風俗이 있다. 여기서 거북놀이는 농악놀이와 함께 이루어지는 때 거북은 長壽를 상징하는 것으로 無病長壽의 의미가 깃들여 있다.

4. 冬季의 風俗

冬季의 風俗중 복식관련 풍속으로는 야광귀 풍속, 燒髮풍속 그리고 冬至獻襪풍속이 있다.

1) 야광귀 풍속

설날 그믐날밤에 야광귀가 내려와 아이들의 신을 신어보고 맞는 것을 신고 간다하여 밤엔 신을 방안에 두고 자며, 뜰에 長竿을 세우고 체를 걸어놓아 야광귀가 체눈을 세어보다가 날이 새어 닭이 울면 되돌아가도록 한다¹⁸⁾.

2) 燒髮(燒髮)풍속

燒髮은 1년동안의 낙발을 모아 태우므로써 疫癘(염병)을 물리친다고 한다. 이는 陰鬼를 없애고 辟邪함으로써 1년의 幸運과 無病을 기원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¹⁹⁾.

3) 冬至獻襪(冬至獻襪)풍속

冬至獻襪은 부인들이 동지에 시부모에게 신과 버선을 드리는 풍속으로서 이는 수복과 장수를 누리라는 의미에서이다²⁰⁾.

지금까지 歲時風俗의 개념 및 四季에 따른 歲時風俗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다음은 『혼불』에 묘사된 歲時風俗 복식 및 복식행동을 분석하기로 한다.

Ⅲ. 텍스트 분석

1. 설날풍속과 복식

(1-1) 정월 초하룻날은 일년 중에 가장 큰 명절이나,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이라 사당에 참례하고, 어른에게 세배를 올리며, 성묘도 하는 정중 엄숙한 날이어서, 즐거운 가운데 조심해야 할 일이 많다. 그리고 여자들은 초사흘날까지 세배도 다닐 수 없었다.오류골댁은 강실이의 설빔으로, 물 고운 연분홍과 연노랑 치마 저고리 감을 반달이에서 꺼내 마르기 시작하였다..... 그런 오류골댁이 나이 스물어 넘어 스물 하나가 되려 하는 딸의 설빔으로 그 동안 반

16) 임동권, *Ibid.*, pp. 81-85.

17) 『東國歲時記』:十五日 東俗稱流頭日 按金克己集 東都遺俗 六月 望日浴髮於東流水 獻除不詳因爲醜飲 謂之流頭宴.

18) 『京都雜誌』卷二: '鬼名夜光 夜入人家 喜偷鞋 鞋主不吉 小兒畏之 藏鞋減燈早宿 廳壁上懸籬 夜光計其孔不盡 鷄鳴乃去云.'

19) 『東國歲時記』: '男女一年梳髮退髮 留梳函中 必待元日黃昏 燒於門外 以辟瘟.'

20) 이익, 『星湖僊說』卷四 萬物門 冬至獻襪.

달이에 아껴 두었던 명주를 꺼내, 무슨 마음으로, 새 품을 재 새움을 지었던 것이다. (4권 : 173)

<1-2> 머느리 울흔때이 담옥색 명주 저고리에 물 고운 남빛 끝등을 달아 자주 고름 길게 늘인데 다 농남색 치마를 전아하게 부풀리고 단정히 앉아서 어머니 청암부인을 가까이 모신 좌우에 담황색 저고리, 등록색 치마, 전자주 깃·고름에 삼회장 저고리, 짙고 푸른 치마에 담황색 은은한 저고리며 북청색 치마에 녹두 저고리, 앵두색 저고리에 은회색 치마, 흑 자주 긴 옷고름들이 이만큼 다가앉고 저만큼 불러앉은 방안은,너나없이 새옷이면 더욱 좋겠지만 입던 옷이라도 새로 빨아 흑 물을 다시 들이거나 깨끗하게 손질하여 푸새와 다듬이질·홍두깨질, 어느 하나 소홀히 하지 않은 손끝으로 바느질 정성껏 한 설빔들을 꾸미고 펼쳐입었는지라, 그 어느 날보다 화사한 빛깔로 방안이 가득하였다.

오류골때은 단청의 녹옥색 은근히 돌아나는 저고리에 치자로 여러번 물을 놓아 황적색 오련하게 짙은 치마폭이었고, 그 옆에 강실아는 홍두깨 곱게 올린 연두 저고리에 연분홍 치마를 입고 있었다.

새양머리 예장을 양장맞게 한 계집아이가, 잔치동 저고리에 꽃분홍 치마를 받쳐입고 어른들 틈바구니에 끼어 앉아..... 피꼬리색 저고리에 가지색 치마 다소곳이 여미어 한쪽에 조아린 새대도 있었다.....

강실이는 그 알이 비치는 명주 저고리 에달픈 연두와 연분홍 치마를 입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효원은 궁창 바다 밑보다 푸른 진남색 비단 치마를 드리운 위에 새각시 눈부신 진노랑 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그 빛깔이나 모습은 구긴 데 감춘 데 없이 정대하고 당당하였다. (7권 : 12, 15)

텍스트 <1-1>은 춘계세시풍속 중 음력 1월 1일 설날풍속으로써, 21세 처녀의 연분홍치마/연노랑저고리 설빔이 나타나 있다.

텍스트 <1-2>는 설날에 청암부인을 찾아온 친족 여인들의 복식이다. 우리 여인네들은 설에 새 옷을 해 입거나 아니면 입던 옷이라도 새탁, 염색, 푸새, 다듬이질을 새로 해서 새해를 맞이했음을 알 수 있었다. 텍스트에 나타난 여인들의 설빔을 정리해 보

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와 같이 여자들은 색동 저고리에 분홍색 치마의 설빔을 착용하였고, 결혼전인 처녀들의 설빔은 노랑 또는 연두에 연분홍계열의 치마를, 막 결혼한 새댁들은 노랑계열의 저고리에 가지 또는 진한 남색계열의 치마를 차려 입었다. 중년 부인들은 열은 홍색이나 황색계열 또는 녹색이나 옥색계열의 회장 또는 반회장 저고리에 짙은 청색, 녹색 그리고 황적색 계열의 치마를 착용하여 연령 및 혼인 여부의 복의 색 및 구성방법으로 차별화를 주고 있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색동 → 노랑/연두 → 진노랑 → 담황/담홍 → 녹·옥색으로 상의의 색상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으며, 하의는 꽃분홍 → 연분홍 → 가지색/진남색 → 농남색/ 등록색/ 은회색/ 황적색으로 변화되고 있었다.

또한, 자주고름·깃, 남색끝등을 든 회장저고리와 같이 의복의 색상 및 구성방법으로부터 '양반계층'과 '평민계층'의 차별화를 인지할 수 있었다.

이상의 텍스트 <1-1>과 <1-2>는 春季風俗 중 음력 정월 초하루 즉 '설날'에 관한 풍속 분석으로

<표 1> 설빔과 의미

저고리 색상	치마 색상	텍스트에서의 의미	
색동	꽃분홍	여아	
연노랑	연분홍	미혼녀	
연두	연분홍		
피꼬리색	가지색	새댁	
진노랑	진남색		
담홍색(+남빛끝등+자주고름)	농남색	양반계층	중년부인
앵두색(+자주고름)	은회색		
담황색(+전자주 깃+전자주 고름)	등록색	평민계층	
담황색	짙푸른색		
녹두색	북청색		
녹옥색	황적색		

써 설빔의 종류가 나타나 있다. 새해 첫날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행동을 조심함으로써 일년동안의 안녕을 기원²¹⁾할 뿐만 아니라 이때 착용한 복식으로부터 착용자의 연령, 혼인 여부, 신분을 인지할 수 있었다. 이처럼 설날 풍속은 개인적이고 다소는 폐쇄적이며 소극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정월 대보름 풍속과 복식

〈2-1〉 그러나 대보름날은 다르다. 이날만큼은 남·녀·노·소가 따로 없고, 반·상이 따로 없이, 모두 한 동아리로 즐기는 날이라, 사람들은 설날보다도 보름날을 더 좋아하였다. 정월 초하루부터 시작된 명절의 흥겨움은, 집집마다 풍물을 들며 안택굿·조왕굿을 하는 것으로 이어지다가 보름날에 이르러 절정을 이루는 것이다. (5권 : 53)

〈2-2〉 “마양우울(望月)이야아.” 먼 논배미에서 아이들이 쥐불을 놓으며..... 새 달이 신령스럽게 등 두렁이 뜨는 보름달도 그 못지않게 흥겹고 즐거운 날이라. 사람들은 며칠 전부터 징과 팽과리를 꺼내 놓기도 하고, 북이며 장구, 소구에 앉은 먼지를 털어 내기도 하면서, 한쪽에서는 흰 고깔을 접기도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 고깔에 달 종이꽃을 함박꽃같이 부엌부엌 노랑·진홍·남색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동산 기슭에 달집을 만들어 세우려고..... (5권 : 51, 52)

〈2-3〉그 최고 맑은 달이 뜨는 것을 맨 먼저 본 사람이, 불을 당기어 달집을 사르는 것이다. 불이 붙은 달집은타기 시작하고 열두 발 상모에, 꽃같은 고깔을 쓴 농악대는 영기(令旗)를 앞세워 달집을 돌며 신나게 풍물을 울렸다.한쪽에서는 덩실 덩실 춤을 추기도 하였다. 그리고 사내아이들은 지난겨울과 정초에 날렸던 아까운 연들을 모두 불속에 집어넣어 태우고, 계집아이들은 제 저고리에 달린 등정을 뜯어 달집에 던져 넣었다. (5권 : 54, 55)

위의 텍스트 〈2-1〉 ~ 〈2-3〉에서는 춘계풍속 중 정월 대보름의 풍속이 나타나 있다. 정월 대보름의 풍속은 설날과는 달리 남·녀·노·소와 반·상의 구분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개별적이라기 보다는 집단적인 풍속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보름의 풍속으로는 ‘더위팔기’, ‘오곡밥 먹기’, ‘귀 밝이 술 마시기’, ‘부름 깨물기’,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농악놀이’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대부분이 음식문화와 관련이 있었으며, 이중 달집 태우기, 농악놀이만이 의복 행동과 관련이 있다.

‘달집태우기’에서 소년들은 자신이 날렸던 연을, 소녀들은 자신이 지난 해 입었던 저고리의 동정을 태우면서 목은 액을 날려보냈던 것이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보름은 집단적·개방적·적극적인 마을 공동체 명절²²⁾인 것이다.

위의 텍스트에 나타난 정월 대보름 풍속관련 복식으로는 농악대의 복식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즉 열두발 상모, 종이 꽃 달린 고깔 그리고 소품으로서 징, 팽과리, 북, 장구, 소구 등을 들 수 있다.

〈2-4〉 “이 연이란 것은올 한 해 아무 탈없이 무사하게, 연이 저 하늘로 거침없이 높이 날 듯이, 하는 일마다 모두 성취하고 잘 풀리게 해 주시라고 간곡히 비는 마음을 실어서, 바람에 띄워 하늘로 올려 보낸다는 뜻도 있는 것이다. (5권 : 224)

〈2-5〉연에 쓰는 물감은 적·청·황·흑·백의 오색이었다. 우주의 근원인 하늘에 띄워 올리는 빛깔이므로, 동·서·남·북과 중앙을 나타내며 음양 오행의 원리를 담은 오방색만을 썼던 것이다.색깔에 따라 연에는 각기 다른 이름이 붙었다. 허나 만일 연에다 아무 빛깔도 넣고 싶지 않으면 이마에 꼭지만 하나 붙이고 壽(수), 福(복), 龍(용)자를 먹으로 써서 날리기도 하였다. (5권 : 227, 228)

자료 〈2-4〉 ~ 〈2-5〉에는 연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와 연의 종류가 나타나 있다. 즉, 연에는 모든 액을 하늘로 띄워 보내고, 이들은 모두 음양 오행의 원리

21) 민속학회, *Ibid.*, p. 113.

22) 민속학회, *Ibid.*, p.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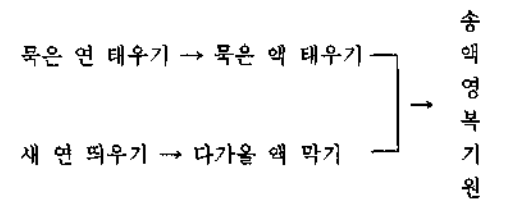
에 따라 오방색만을 사용함으로써 동·서·남·북 그리고 중앙이 두루 만사행통하길 간곡히 기원하는 마음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또한 유사 법칙에 기인하고 있다.

연 + 오방색(적·청·황·흑·백) 또는 壽·福·龍 + 하늘에 띄우는 행위 → 만사행통기원.

<2-6> 보름이 넘어서도 연을 날리면, 고리백정이 라고 크게 꾸중을 들었다..... 오늘은 보름밤. 지치게 날리고 놀던 연이나 금방 만든 새 연이나 가릴 것 없이, 이제 더는 가지고 있지 못한다. 생솔가지와 생대 나무로 푸르게 엮어 지은 달집이 뭉글뭉글 구름덩이 같은 흰 연기를 토하며 타오르는 붉은 불길에 던져 넣은 연들은, 화르르 불너울을 일으키며 눈 깜짝할 사이에 스러져갔다. “모든 액(厄)은 다 타 버리라.”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 대보름날이면, 집집마다 멀리 날리어, 앞으로 다가올 액을 미리 막으려는 액막이 연을 띄우는 것이었다. 마치 소복을 한 듯 아무 색도 입히거나 칠하지 않은 백지의 바탕이 소슬한 흰 연에다, 섬뚱하리만큼 짙고 검은 먹빛으로 “厄(액).” “送厄(송액).” “送厄迎福(송액영복).”을 써서 갖 떠오르는 새 달의 복판으로 날려보내는 이 액막이 연..... (5권 : 233, 234)

텍스트 <2-6>으로부터 연날리기는 축제의 경계이며, 지난해와 새해의 마지막 경계 그리고 양반과 상놈의 신분이 다시 되살아나는 경계 일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단순한 놀이 차원이 아닌 지난해의 액(厄)과 새해에 다가올 액(厄)을 동시에 막으려 한 조상들의 소품관련문화를 알 수 있다.



<2-7> “강실이 저것이 올해 신수가 영 안 좋다고,제웅이나 하나 띄워줍시다.” 제웅은 짚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액막이로 쓰는 허수아비다..... “이 달 정월 보름날에 연 끄터리다가 조그막하게 맨들어 달어서, 돈 한뼘 째매 갖꼬, 휘어이 휘어이, 먼 디로 가라고 날려보내 보셔요. 제웅 속으다가 생 일 생시 써서 넣고, 이름 쓰고요.”연의 이마에 꼬두서니 흥꼭지 대신에 검은 글씨로 ‘厄’ 이라 써 놓은 것이 달빛을 받아 더욱 귀기를 떠는데, 풍지에 매단 지푸라기 허수아비 제웅은, 손가락 길이보다 조금 더 컸지만, 백지로 얼굴을 씌워 감은데다 눈이며 코며 입술이며 검은 붓으로 그려 넣은 것이, 강실 이를 철렁 놀라게 하였다. (5권 : 235-237)

텍스트 <2-7>도 텍스트 <2-6>과 마찬가지로 액을 막기 위한 습속이다. 여기서 <2-6>을 사회적인 의미로 볼 수 있다면, <2-7>은 보다 개인적인 의미로 볼 수 있다. 즉, ‘제웅’을 통해서 액을 피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다.

제웅 + 돈 + 생일생시 + 이름 → 개인의 액막이

이상의 자료 <2-1> ~ <2-7>까지는 춘제풍속 중 정월 대보름날의 풍속으로써 여러 가지 의식이 행하여지며 그 의미 또한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연 날리기’는 만사행통을, ‘연 태우기’와 ‘소녀의 저고리 동정 태우기’는 묵은 액을 태운다는 주술적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 이처럼 대보름관련 풍속은 주로 건강과 풍년, 운수대통 등과 같은 집단지, 개방적, 적극적, 주술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복식보다는 음식관련 행위가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3. 2월의 월중풍속과 복식

<3-1> “불들어, 너 진새힐 때 아직 안 되었나?” ‘진새’란 담살이의 애터를 벗고 드디어 ‘은 일꾼’으로 인정되는 한판의 잔치였다. 그러나 이것은, 생일이나 명절처럼 날짜 되었다고 치르는 것이 아니었다. 이 진새를 하기 전에 담살이는 반드시 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던 것이다. 당사자에게는 장정이 된 축하의 뜻으로 옷 한 벌씩을 해 주었다..... 주인집에서는 머슴이 기거하는 머슴 사랑을 따로 주고, 사철 의복도 물론 다 해 주었는데, 봄·가을로는 무명 중

의·적삼, 여름에는 베 잠뱅이·등거리에, 겨울에는 솜바지·저고리였다. (4권 : 110-112)

텍스트 <3-1>은 이월의 풍속중 머슴날(奴婢日)의 풍속이다. 일부 지방의 농가에서는 음력 2월 1일을 머슴날로 정하고 있으나 본 텍스트에서는 특별한 날로 정해진 것 같지는 않으나 춘계의 풍속으로 추측할 수 있다.

'진새'란 노비의 성인식과 같은 통과의례로서 머슴의 계절별 의복이 나타나 있다.

<표 2>에 나타난 의복의 소재로부터 착용자의 신분 및 계절을 인지할 수 있다.

<3-2>울촌댁은 창호지 눈부시게 하얀 백지로 오린 커다란 버선본을 펼치어, 곱게 풀을 바른 뒤, 아 세상에서 가장 크고 성스러운 향아리에 공물을 바치듯, 향아리의 가슴 한복판에 거꾸로 붙인다. 그 불룩한 가슴 한복판에 거꾸로 붙은 버선본의 커다란 발이 저녁 하늘을 밟고 있는 모양은, 확실히 이 장독이 그 어떤 거대한 힘으로 이 네 여인을 거느리고도 남는, 더 큰 여인인 것을 느끼게 하였다. 저 버선본 만한 발을 가진, 하늘을 밟은 여인. 그는 누구일까. 대대로 이 집안을 지켜오며 이 독에 장을 담그고, 그 장으로 식구들의 밥을 먹이며, 살로 가고 뼈로 가게 음식을 만들어 먹던 가모(家母)들의 혼과 그 손들. 혹은 그 손에 묻은 세상들. 아니면 꿈. (6권 : 240)

텍스트 <3-2>는 2월의 월중 풍속중 장담그는 풍속이다. 장독에 버선본을 올려 붙이는 것은 장맛이 변하지 말라는 뜻과 부정이나 잡귀가 범접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이는 버선이 발에 신는 것이니까 걸음을 걸을 때마다 밟고 밟혀서 부정이나 잡귀를 막는 주술적인 힘이 생겼다고 믿는데서 유래했으며, 버선을 거꾸로 붙이는 것은 악귀에게 두려움을 주어 침입을 막으려는 의도에서라고 한다²³⁾.

경기도 양주에서는 정월 대보름에 토정비결이 나쁘게 나오면 버선 본을 창호지로 오려 싸릿대에 끼워 발바닥을 위로하여 지붕용마루에 꽂아놓고 절을 함으로서 다가올 액을 막았다고 한다²⁴⁾.

<표 2> 진새복식과 의미

복식	텍스트에서의 의미	
무명중의·적삼	춘추복	하류계층
베잠뱅이·등거리	하복	
솜바지·저고리	동복	

본 텍스트에서 버선본의 의미는 가모의 혼, 가모의 세상과 꿈으로 의미 확장되고 있다.

장독 + 버선본 → 좋은 장맛 → 부정·잡귀의 접근 금지 → 가모의 혼, 가모의 세상, 가모의 꿈.

이상의 텍스트 <3-1> ~ <3-2>는 음력 2월의 월중 풍속이다. 1일에 영동 할머니께 제사를 지내 풍년을 빌며, 소지를 올려 식구의 소원을 빌고, 콩을 볶아 병충해를 막는 풍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새'라는 머슴들만의 통과의례와, 6일에는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쯤생이점 그리고 무신일에 장담그기 풍속 등이 있으나 본 텍스트에는 복식과 관련된 진새와 장담그는 풍속만이 나타나고 있다.

4. 3월의 월중 풍속과 복식

<4-1> 두레가 시작되던 날의 농악은 대단했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농기 깃발을 호기롭게 펼치며 농악대가 동네 모정 앞에 모였을 때, 사람들은 그 날씨의 화창함과 울리는 소구·장구 소리에 진심으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농사일이 부디 순탄하기를 빌었다. 그날, 상쇠, 상소고, 상버꾸, 상무동을 섰던 사람들도, 징과 쟁과리·장구, 북을 두드리던 사람들도, 그렇게 신명나게 날라리 호적을 불던 사람들도, 몸에 감았던 청홍의 띠를 벗어 놓고, 지금은 오로지 모내기 열중하고 있다..... 농악대의 폐자 자락이 휘날릴 때, 열두 발 상모가 푸른 하늘에 그리던 갖가지의 하얀 무늬는 또 얼마나 경쾌하고 절묘하였던가. 거기다가 여장을 한 무동들이 다섯이나 나와서, 삼베 길쭉하는 흉내를

23) 裴桃植, 韓國民俗의 現場. (서울 : 집문당, 1993), p. 164.

24) 김선풍, 경기지역 세시풍속의 특징, 세시풍속(경기도), (국립문화재 연구소, 2001), pp. 1008-1009.

어찌나 앙징맞게 하는지..... 그들은 쪼개기·삼삼기·삼뭉치기·물레질·감는 돌개질·익히기·푸는 돌개질·날기·베매기·짜기·빨래하기 등등의 시늬..... ㉠그럴 때의 아낙들은 집안에서 바깥쪽으로는 얼굴도 돌리지 않고 원자락으로 치마를 여며 입는 반가의 부인으로 태어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렇게 한평생 농사짓고 베틀에 앉아 손톱 발톱이 닳아지도록 배만 짜며 살아가는 것이 조금도 원통하지 않은 것이다. 원통하기는커녕 웬일인지 감사하고 까닭 모르게 벽차 오르는 것이었다. (1권 : 114-117)

텍스트 <4-1>은 3월의 월중 풍속인 두레에 관한 내용이다. 두레때 농악놀이의 의미와 농악대들의 소품, 그리고 복식이 나타나 있다. 농악놀이는 그 해의 농사일이 순탄하길 기원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소품으로는 상쇠, 상소고, 상버꾸, 상무동, 징, 평과리, 장구, 북, 호적 그리고 천하지 대본이라 쓴 깃발 등이 있다. 농악대의 복식으로는 패자와 청·홍띠 그리고 12발 상모가 나타나 있다. 이밖에 여장무동들의 삼베 길쌈놀이를 보면, 쪼개기·삼삼기·삼뭉치기·물레질·감는 돌개질·익히기·푸른돌개질·날기·베매기·짜기·빨래하기로 나타나 그 당시의 여인들의 길쌈작업을 알 수 있다. 위의 밑줄친 ㉠으로부터 두레가 양반계층보다는 천민계층에서 즐기는 풍습이라 볼 수 있다.

두레·농악놀이 → 천민계층의 풍속

<4-2> 생초(生納) 상의(上衣) 매만져서 기름같이 곱게 곱게, 양태무늬 수갑사(繡甲絲)에 금사로 수를 놓아 수복다남(壽福多男) 박아 달고, 다각기 종(種)대로 오색치장 하였구나.

백능(白綾) 비단 겹저구리 자주 비단 깃을 달고 남색 비단 골동에다 반호장을 물렸으며, 홍능 치마 길게 말아 백능으로 말기 달고, 삼승 버선 겹버선을 마치맞게 기워 신어, 양정할사 어여쁘다 배꽃 같은 두 발길을, 푸른 비단 운해 당혜 겹은 공단 속을 받쳐 담속담속 신었드니 그 아니 고우리오. 이 락이 누구신가.

또 한 댁내 치장 보소. 시절 알고 때맞추어 초록으로 물들여서 푸새다듬 맞게 하여 제 색 고름 늘이우

고, 한산세져 가는 모시 진술 내어 구밀 적에 주름은 좁게 잡고 말기는 넓게 달아, 오만 누비 잔줄 바지 발등 위에 남상남상, 삼승 버선 외씨발에 아조 담속 신었으며.

어떤 댁내 차림이나, 송화색의 겹저구리 흑자주색 깃을 기워 흰빛으로 등정 달고, 홍감사 속치마에 철감사 겹치마를 몸맵시 가득 내어 보기 좋게 덮어 입고, 알송달송 꽃당혜는 운무간에 노니는 듯.

이 모습은 어떠하오, 아른아른 유문(有紋)감사 순색으로 깃을 달아 바람 받아 나무끼는 제 색으로 고름 매며, 월광단 다홍치마 아홉폭 말아 입고 얼썹덜썹 호랑당혜 두 발길에 넉넉 신네.....

녹두 비단 겹저구리 밀화 단초 달았으며, 물명주 속옷에다 시금치색 진녹치마, 산호 진주 좋은 구슬 옥패 경경 앞에 차고, 은장도 빛난 팔을 치마끈에 나뭇 차니, 인물이 좋을시고 장하고도 어엿바다.

오색창연 만색당혜 신체 따라 격에 맞춰 떨쳐입고 나실 적에, 난잡하게 안하고도 상품외복 가려내어 옥양목 차림버선 달갈같이 굴러 짓고, 백설 백운 흰 신에다 일신을 고이 담아, 감사 치마 녹의 홍상 첫걸음에 썩 나서니 꽃도 같고 달도 같네.....

아롱명주 겹저구리 자주 고름 팔랑팔랑. 잇씨불감 다홍 치마 꽃과 섞어 바꿔(8권 : 312, 313, 316, 317)

텍스트 <4-2>는 3월의 월중 풍속인 두레·농악놀이가 천민계층 관련 풍속인데 반해, 화전놀이 풍속은 양반계층의 부녀자들의 풍속이라 볼 수 있다. 여기에 나타난 여인네들의 치장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에서는 3월 여인네들의 나들이 복식이 묘사되어 있다.

설빔에서는 복식의 색깔이 주로 묘사된 반면, 화전놀이 풍속에 나타난 복식의 특징은 색상과 더불어 의복의 소재와 신발이 강조되고 있다.

저고리의 대부분이 겹저고리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소재로는 초, 능, 감사, 명주가 주를 이루며, 치마는 대부분이 감사였으며 그 외에 '모시와 단'도 사용되었다.

저고리의 색상은 백색, 노란색, 초록색 계열이 주를 이루며, 치마는 홍색계열이 역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청색, 녹색 계열이 사용되었다.

〈표 3〉 화전놀이 복식

저 고 리	치 마	족 의
생초 + 壽福多男	양태무늬 수갑사	
백능저고리 + 자주 깃 + 남색 끝동, 겹저고리	홍치마 + 백능말기	삼승버선 + 푸른비단 운혜
초록저고리	한산모시	삼승버선
송화색 + 흑자주 깃 + 흰 동정	홍갑사 속치마 + 청갑사 겹치마	꽃당혜
유문 갑사	월광단 다홍치마	호랑당혜
녹두저고리 + 밑화단추 + 산호진주 옥패경경 + 은장도, 겹저고리	물명주 속옷 + 진녹치마	당혜
갑사 녹색 저고리	갑사 홍치마	옥양목 차렷버선+ 흰신
아름명주 + 자주고름, 겹저고리	다홍치마	

이상으로부터 화전놀이 풍습은 연중 타 풍습과는 달리 주술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았으며, 단지 여인들의 공공연한 치장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설날을 내적공간 복식 풍습이라 본다면, 화전놀이 이는 외적공간 복식풍습이라 볼 수 있다.

이상의 자료 <1-1> ~ <4-2>까지는 춘계풍속으로써, 설날의 설빔과 솟놀이, 정월대보름 풍속인 더위 팔기, 오곡밥, 이명주, 부럼 깨물기 등과 귀불놀이, 달집태우기, 닭교, 햇불싸움, 연날리기, 농악놀이, 입춘풍속으로 입춘문 써 붙이기 그리고 2월에 진세, 영동계, 소지, 풍뎉기, 3월의 월중행사인 두레와 화전놀이 에 대한 풍속이 나타나 있다. 이 중 복식관련 풍속 은 주로 설날과 화전날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5. 端午風俗과 服飾

<5-1> 설·추석이 연중에 가장 큰 명절이지만 양기가 천지에 가득 찬 날이라 그 못지 않은 가절(佳節)이 단오날이었다. 수리·천중절·수릿날이라 하는 이날이면, 동네 남자들은 모래밭에 씨름대회를 하고, 여자들은 하늘 높이 그네뛰기를 하여 온통 흥겹고 즐거운 중에 무엇보다, 창포 삶은 물에 머리를 흥건히 적시어 감아내던..... “자, 강실아, 이리 오나라.” 오류골덕은 창포 뿌리 깎은 비너 끝에 새빨간 주사를 꼭 찍어 강실이 귀밑에다 곱게 꽂아 주고는, 기응의 상투에도 아담하게 꽂아 주었다. 그리고 나서 그 흰뿌리 창포비너를 자신의 남자머리 동그란

쪽에도 꽂았는데, 주사는 벽사(辟邪)라, 요사스러운 귀신을 물리치는 육방정계(六方晶系) 광물이니, 이 창포잠 꼭지에 찍힌 점 선명한 빛깔이, 일년 횡액과 온갖 못된 작해를 막아 주기 바라는 습속이었던 것이다..... (7권 : 194, 195)

텍스트 <5-1>은 하계풍속중 음력 5월 5일인 단오(수리, 천중절, 수릿날)에 관한 풍속이다. 이 때 남자들은 씨름대회를 열고, 여자들은 그네뛰기를 하였으며, 또한 창포 삶은 물에 머리를 감고, 창포 뿌리로 만든 비너에 주사를 찍어 머리에 꽂았으며 天中籍符를 문 위에 붙이기도 했다. 여기에는 일년동안의 모든 횡액과 작해를 막는다는 주술적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창포삶은 물 + 머리 감는 행위 → 美毛

창포뿌리 비너 + 주사 + 귀밑머리/ 상투/ 남자머리에 꽂음 → 횡액과 작해를 막음.

6. 선달그믐風俗과 服飾

<6-1> 그믐날 밤에는 장등을 하지만..... 이맘때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야광귀 이야기..... 하늘에서 널와 갓포 살찌기 사람 사는 집으로 들어가서, 토방에 널려 있는 이 신 저 신 산어 보고, 저한테 맞는 놈을 들라 간다고 안 그리여? “근디. 신을 잊어 불면 어찌 간디요?” “제수가 없지 어찌. 일년 내내. 사람이 신을 산어야 어디을 댕기는 거인다..... 까잡하게. 일년

동안 그러고 오그리고 앉았으면 더이 좋겠나? 재수가.” “그러면 어쩐대요?” “그렇게 그날은 토방으다 신 벗어 두면 안디제이. 딱 들고 들고가서 옷목으다 놓든지 어디 시렁에다 올려 놓든지. 조심해야디.”.....

“섣달 그믐날 밤에는 자면 안되야. 눈썹 센다.”..... 신원(新元), 혹은 원일(元日)이라고도 하는 정월 초하루는 바로 일년이 시작되는 새해의 첫날이니 명절 중의 명절이요, 날 중의 날이라. 정중하고 경건하게 맞이해야 하기에, 며칠 전부터 집 안팎을 깨끗하게 치우고, 차례 올릴 준비를 하며, 식구들 설빔도 빠지지 않게 새로지어야 하니..... 만약 잠자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눈썹이 하얗게 새어 버린다 했다..... (5권 : 24-27)

텍스트 <6-1>에도 역시 섣달 그믐의 습속이 나타나 있다. 장불을 켜 놓고 야광귀가 신발 훑쳐 가는 것을 막았는데, 여기서 신발은 새 해의 재수를 의미하는 바로서 신을 잃어버리면 일 년내내 재수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섣달에는 어른들에게는 새장(歲粧)을 아이들에게는 때때옷 등 설빔을 준비하기 위하여 밤을 새워야 했기 때문에 만약 잠자는 사람이 있으면 눈썹이 하얗게 새어 늙고 만다는 금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 + 실내에 들여놓은 행위 → 새해의 재수 기원
섣달그믐 + 잠자는 행위 → 눈썹이 희어짐; 늙음 → 새해를 위한 마음가짐.

<6-2> 그렇게 상투를 좇아 동곳을 쫓은 다음에는 한 올이라도 떨어진 머리털이 있으면 반드시 주워서, 그것만 모아 싸두는 종이에 담았다..... 비록 저질로 댕진 쓸모없는 터럭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하지 않고 정월 초하룻날부터 섣달 그믐날까지 소중히 모아서 간수하였다가, 비로소 그믐밤에 태우는 것이었다. (5권 : 21, 22)

텍스트 <6-2>에는 섣달 그믐날 밤에 일년간 간수했던 탈모를 태우는 염발 습속이 나타나 있다. 이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身體髮膚이니 追遠報本の 생각에서이기도 하겠지만 거기에는 辟瘟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었다고 한다²⁵⁾.

탈모 + 태우는 행위 → 追遠報本 → 辟瘟

이상의 텍스트에 묘사된 세시풍속의 복식 및 복식행동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춘계풍속에는 설날의 설빔풍속, 정월대보름의 농악놀이·방연·답교풍속, 2월의 진새와 장담그기풍속, 3월의 두레·농악놀이·화전놀이 풍속 등이 포함되며, 하계풍속으로는 5월 단오풍속, 그리고 동계풍속으로 섣달그믐의 야광귀 풍속과 염발풍속이 있으나 주로 춘계풍속이 강조되고 있었으며 복식 관련 묘사 역시 춘계풍속인 설날의 설빔과 화전날의 화전놀이 때 여인들의 치장 묘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선행연구인 통과의례와 복식분석(I)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통과의례가 인위적인 의례로써 복식의 격식이 엄했을 뿐 아니라 많은 상징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던 반면에, 세시풍속에서는 복식 및 복식행위가 자유로우며, 복식의 격식이 덜 중요시되고 있었으며, 주술적 의미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분석할 수 있었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전통 세시풍속을 고찰하고, 소설 <혼불>에 표현된 우리 민족의 세시풍속과 관련된 복식문화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복식문화와 관련있는 춘계풍속에는 설날·대보름·진새·장담그기·두레·화전놀이풍속이 있었으며, 하계풍속에는 단오풍속이, 그리고 동계풍속에는 야광귀·수야·염발풍속 등이 있었다.

음력 1월 1일의 설날풍속에는 일년동안의 안녕을 기원하는 개인적이며 소극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었

25) 임동권, *Ibid.*, p. 139.

으며, 설빔의 색이나 구성 방법으로 착용자의 연령, 혼인 여부, 신분을 표현하고 있었다. 즉 연령이 높아 질수록 색상이 증상계열(색동, 파스텔톤의 색상)에서 난색계열(황색, 홍색) 그리고 한색계열(녹색, 옥색, 남색)로 변화되었으며, 저고리의 구성(민저고리와 회장저고리)을 달리하여 반·상의 신분을 차별화 시키고 있었다.

반면, 음력 1월 15일인 대보름 풍속에는 농악놀이·방언·담교 풍속 등이 포함되며, 이들 풍속으로부터는 건강·풍년·운수대통을 기원하는 집단적·개방적 특성을 엿볼 수 있었다. 이 때 착용하였던 복식 및 복식행동에는 성별·연령·신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었다.

2월 월중 풍속인 장담그기 풍속과 하계의 단오풍속 그리고 동계의 야광귀·수야·염발 풍속에 나타난 복식 및 복식행동에는 주술적 의미가 강조되고

있었다.

반면, 2월의 진새풍속과 3월의 두레·농악놀이·화전놀이 풍속과 관련된 복식 및 복식행동에는 계절, 신분과 같은 현실적의미가 부각되고 있었다.

설빔풍속과 화전놀이풍속 그리고 진새풍속에서는 복식묘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치장을 위한 현실적 의미 이외에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추구하지는 않았다.

음력 2월의 진새풍속과 3월의 두레풍속에 나타난 복식 및 복식행동이 천민적 성향을 띤다면, 1월의 설날풍속과 3월의 화전놀이 풍속에서는 양반적 성향을 띠고 있었다. 이에반해 정월 대보름풍속은 중성적 풍속이라 볼 수 있었다.

또한 설빔풍속이 내적공간 복식풍속이었다면, 화전놀이 풍속은 외적공간 복식풍속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세시풍속이 표면적으로는 자연력이나 생

<표 4> 세시풍속 복식과 의미

		복식의 종류 및 행위		의 미 분 석		
춘 계 풍	음력 1월 15일	색동	꽃분홍	여아		
		연노랑	연분홍	미혼녀		
		연두	연분홍	세대		
		피꼬리색	가지색			
		진노랑	진남색			
	1월 15일 풍속	담홍색(남색끝동, 자주고름)	농남색	양반 계층	설빔풍속	연령 혼인 여부 신분 神聖衣裳 개인적 폐쇄적 내적공간 복식풍습
		앵두색(자주고름)	은회색			
		담황색(진지주 깃·고름)	등록색	평민계 층		
		담황색	질푸른색			
		녹두색	북청색			
녹옥색	황적색					
속	음력 1월 15일 풍속	열두발 상모, 종이꽃 달린 고깔, 징, 팽과리, 북, 장구, 소구 달집에 연과 저고리동정 태우기 연 띄움 제웅 띄움 검자주제비부리 탕기/연노랑 명주저고리/ 연분홍 치마	대보름 풍속	성별, 연령, 신분의 차이를 두지 않는 명절 집단적, 개방적, 적극적인 풍속 송액영복의 의미 음양오행사상(적·청·황·흑·백=동·서·남·북·중앙) 주술적 의미 풍년·순탄한 혼사와 건강 기원		

의례보다는 다소 소극적 성향을 띠고 있었으며, 복식 및 복식행동에 내포된 의미 역시 현실적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세시풍속과 관련된 복식 및 복식행위가 지닌 시간성, 공간성, 사회성 그리고 주술성에 대한 파악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사회학적 또는 비교문화학적 관점에서 한국 복식문화의 변용을 측정하는 변수로서의 활용 가치를 제시함에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무학(1981). *한국 세시풍속기*. 서울 : 동호서관.
- 강운숙(1993). 복식에 나타난 오행색 의미에 관한 연구, *복식* vol. 20, pp. 7-15.
- 김선풍(2001). *경기지역 세시풍속의 특징*. 세시풍속(경기도), 국립문화재 연구소.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1981). *한국민속대관* vol. 1-6.
- 국립문화재연구소(2001). *세시풍속(강원도)*.
- 김열규(1971). *한국민속과 문학연구*, 서울: 일조각.
- 민속학회(1994). *한국민속학의 이해*, 문학아카데미.
- 정승모(1998). *한국의 세시풍속II-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권*, 국립민속박물관.
- 유득공(1980). *京都雜誌* 卷二
- 유지현, 한명숙(1997). 소설 <혼불>에 나타난 통과 의례와 복식분석(I), *복식문화연구* 5권 2호, *복식문화학회*.
- 이서구(1969). *歲時記*. 서울: 배영사.
- 이익, *星湖僿說*, 卷四 萬物門 冬至獻模.
- 이해준(1998). *한국의 세시풍속II-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권*, 국립민속박물관.
- 임동권(1993). *韓國歲時風俗研究*, 서울 : 집문당.
- 장정룡(2001). *강원지역 세시풍속의 특징*. 세시풍속(강원도), 국립문화재 연구소.
- 최명희(1996). *혼불 1-10권*, 서울: 한길사.
- 韓國名著大全集(1975). *東國歲時記*, 李錫浩역, 서울 : 대양서적.
- 韓國名著大全集(1975). *京都雜誌*, 李錫浩역, 서울 : 대양서적.
- 韓國名著大全集(1975). *冽陽歲時記*, 李錫浩역, 서울 : 대양서적.
- Berger, A. A.(1989). *Signs in Contemporary Culture*. Wisconsin: Sheffield Publishing Company.
- Firth, R.(1975). *Symbols: Public and Private*,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Leach, E.(1976). *Culture and Communication*,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ech, G.(1975). *Semantics and Society*. London: penguin Books.